

#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정관리학 전공자의 역할

- 공동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마을 만들기의 사례를 돌아보며 -

이 경 희(중앙대학교 생활환경정보학과 교수)

## 1. 서언

마을의 골목길을 걸으며 우리의 자녀들도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좋은 마을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 도시에 도대체 몇이나 될까.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마을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우면산을 관통하는 터널이 바로 우리 마을 옆을 통과하게 되어 온 마을이 진통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무 경험도 없는 주민들이 모여 탄원서를 작성하고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모으고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수 없이 많은 주민회의와 몇몇 주민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터널 공사는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마을을 지나는 구간을 흙으로 덮고 투명 터널을 만들어 소음의 피해를 줄이기로 해결을 보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한 일 중 아직도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든 회의록과 관련 공문들을 상세히 기록하여 남겨놓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의 환경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이웃끼리 서로 더 잘 알게되고 상당한 공동체 의식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 확산된 것이라 여겨진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소외와 고립이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최신의 설비를 갖춘 초고층의 아파트들은 있으나 우리에게 친숙한 동네나 마을은 보기 힘들다. 특히 하나의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는 소원 할 뿐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은 더욱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적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주거의 특성을 보면 첫째, 대부분의 주택은 독립된 단위로 구성되어 핵가족의 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밖에서 일하는 남편과 집에 있는 아내의 가족을 위하여 구성되어 있다. 비록 주택자체의 형태가 집합주택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집합주택들도 단지 통로만이 공유되며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주택의 구조는 가족생활의 사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가족끼리의 의존성을 바탕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공동체적인 생활의 체험이 어려우며 가사노동을 전담하게되는 여성들의 생활은 더욱 부담이 커지게 된다.

최근 우리 나라의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시민 단체,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더불어 생활환경의 제반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활동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 지역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정비 과정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통하여 마을을 만들어 가는 다양한 사례에 관하여 최근에는 상세한 보고서도 발간된 바 있다.<sup>1)</sup>

이러한 공동체적인 의식의 회복과 이웃과 함께 가꾸고 만드는 마을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최근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깊이 맞물려 있다. 이와 같은 주요한 변화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우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변화하여 내 집의 재산가치나 안락함도 중요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주변의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자 하는 욕구와 움직임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방자치의 강화와 함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지방자치단체 들도 이러한 주민들의 관심과 활동을 적극 돕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셋째는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넷째는 각 지역에서 또 더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

1)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마을 만들기 활동에 관해서는1999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간된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에 상세한 보고가 정리되어 있다.

공동체적인 마을을 만들고자하는 활동과 이들의 축적된 경험은 정보화에 힘입어 쉽게 교류되고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아마도 오늘의 과제는 과연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위하여 어떠한 작업들이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지, 그리고 그 일들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실제로 이러한 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가정관리 전공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 2. 지역공동체의 의미<sup>2)</sup>

공동체란 용어의 의미는 사회학적인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이에 대한 개념은 보가타의 방대한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보가타(Borgatta, 1992)는 사회학적인 연구에서 제시한 94개의 공동체에 관한 정의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세 가지의 공통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며, 둘째는 공유된 연계성,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공유하는 지리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최근 교통의 발달과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멜저(Graham Meltzer, 1999)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리적인 공간의 의미는 퇴색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공간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얀켈로비치(Yankelovich, 1981)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 할 때 공동체적인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곳은 내가 속해 있는 곳이고, 이 사람들은 바로 나의 사람들이다. 나는 그 사람들을 보살피며 그 사람들은 나를 보살핀다. 나는 그들의 한 부분이며 나는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안다. 그 사람들과 나는 생각을 공유한다.” 이러한 내용은 인간관계의 질을 의미한다. 얀켈로

---

2) 지역 공동체란 공동체의 유형에서 기초공동체에 속하며 기초 공동체는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대면이 이루어지는 가족이라는 원형공동체 이외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비 대면적인 확대공동체는 불특정 다수인이 구성하는 공동체로서 시민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가 이에 속한다 볼 수 있다.(송복, 1995) 실제로 기초공동체에는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 공동체와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하며 친숙하게 지내는 지위공동체도 포함되나 본 글에서는 주로 이웃공동체를 의미하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비치는 더 나아가 지나친 물질적인 성취에 대한 집착은 공동체의 파괴를 불러온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21세기에 요구되는 공동체는 人和회복의 터전으로 20세기의 공동체의 목표가 인성회복의 원천이었다면 21세기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장치로서의 공동체로 통합성의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자율과 참여, 그리고 관용이라는 가치 지향적인 실행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회적 행위라 보기도 한다. 공동체가 내포하는 기본 행태는 자율통제와 상부상조로서 자율통제는 강제적인 통제가 아니라 공동체 내의 친밀한 성원들에 의하여 비강제적인,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통제이다. 체면 서로의 견제, 질타나 규탄, 절교나 소외는 공동체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재유형이다. 상부상조는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도와주는 행위의 유형이다. 상부상조는 이해를 향한 경쟁보다 이해에 의한 협동을 기본으로 한다. 경쟁이 일반 조직의 기본 행태라면 협동은 공동체의 기본 행태이다(송복, 1995).

지역 공동체의 파괴에 대한 우려는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공동체적인 삶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물리적인 공간의 배치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동체적인 삶을 구현하려는 노력이다.

첫째 주거환경의 물리적인 공간배치를 통하여 이를 복원하려는 노력은 의도적인 주택 단지 계획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의도적인 주택단지들은 규모나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위치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주택단지는 다양한 공간들로 구성되며 각 가구들이 거주하는 단위주택들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시설들이 있다.

실제로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생활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국가나 지역에서 시도되어 왔다.<sup>3)</sup>

둘째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다. 공동체적인 마을을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과 시민단체, 또는 행정 조직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활동력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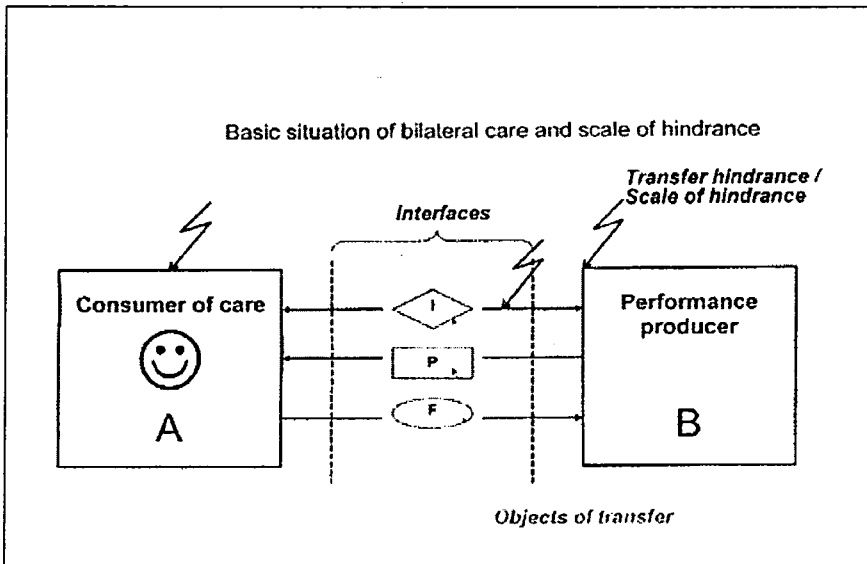
3) 공유공간이 있는 주택으로는 콜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ing), 셰어드 하우스(shared housing), 커뮤니티 하우스(communal housing), 코하우스(cohousing) 등이 있으며 각각의 발달 배경과 지역은 다르나 부분적인 공유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고 이러한 일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지 위하여 최근에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커뮤니티센터의 보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는 다학제적인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 3.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반 과제를 보기 위한 틀

그림 1과 2에서 제시한 두 개의 다이어그램은 2000년 제 19회 세계 가정학회에서 독일의 기센대학의 보틀러 교수가 발표한 “Interface management in the integrated organization for individual care”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간략한 모형이다(Joerg Bottler, 2000). 실제로 이 모형은 개인적인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다양한 측면의 보살핌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와 이들간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관하여 통합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1] 조직간의 쌍무적인 보살핌과 방해적인 요소에 관한 개념도(Bottler, 2000)

I: Informations P: Products F: Funds, Goods, and Services

이 모형을 제시하며 보틀러교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일상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네 조직의 도움을 주고받게 된다. 여기에서 네 가지의 조직이란 첫째, 사적인 개별가구, 둘째는 비영리 서비스 제공 조직, 셋째는 영리 조직, 그리고 넷째는 공공조직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네 조직은 통합적인 조직으로서 사회의 상황에 따라 참여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개인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일 가정학자들의 가장 구체적인 목표가 이러한 개인적인 생활을 잘 관리하도록 돕는데 있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위의 세 조직은 우리의 주요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활의 복지를 위하여 앞의 모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이 거론될 수 있다.

1. 통합적인 조직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이들간의 발전 가능성

2. 통합적인 조직 내에서 각 요소간의 접속점 관리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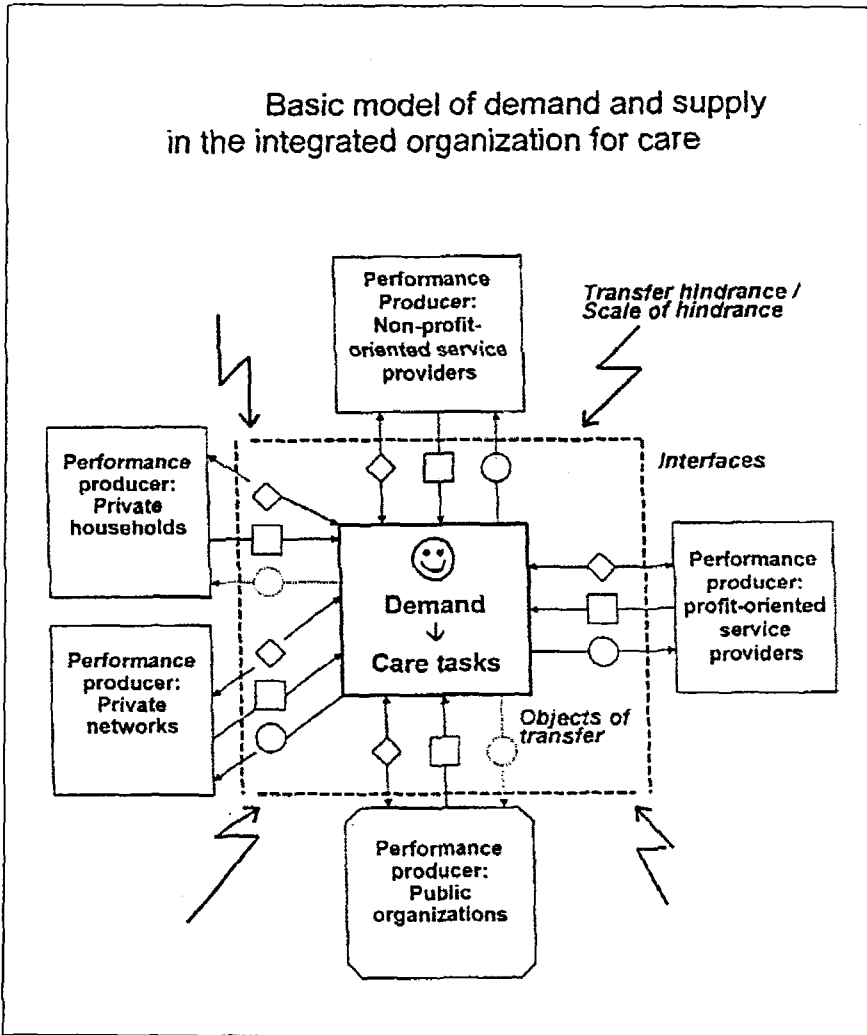
여기에서 접속점이란 통합적인 조직의 각 요소가 만나는 접점을 의미하며 각 요소간의 관계는 연결과 고립의 각기 다른 접속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요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누가 관리할 것인가

- 개인 복지를 위하여 통합적인 조직 속에서 각 요소들 간에 관계를 들어내고 확인하는 작업

- 협력적인 관계의 실패를 막기 위하여 각 요소들 간에 관계의 연계성과 고립성을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이들의 접속점의 구성과 계획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2] 통합적인 조직간의 쌍무적인 보살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초 모형  
(Bottler, 2000)

이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틀러 교수의 모형은 공동체적인 삶을 구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떠한 조직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 요소들 간의 관계와 이들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에 대입하여 볼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서는 소비자라 칭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가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별가구는 비영리조직과 공적인 조직과 어떻게 연결되고 정보와 서비스를 어떻게 교환하며 방해적인 요소들의 영향력의 정도는 결국 공동체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마다 가정관리 전공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 4.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사례 돌아보기<sup>4)</sup>

##### 1) 서울시 용두동 꽃길 만들기

동대문구 용두 1동 동사무소 옆의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은 주민 중의 한 사람이 자신의 집 앞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의도로 화분은 내놓고 꽃길을 가꾸면서 시작되어 현재는 골목 전체가 꽃길이 된 곳이다. 개량형 한옥이 양쪽으로 5채씩 늘어서 있는 이곳의 골목에는 1989년부터 꽃을 가꾸는데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300여종의 화초를 가꾸고 있는 황연희씨의 영향으로 이웃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꽃을 가꾸게 되었으며 가꾸는 꽃들을 골목에 내놓고 또한 벽면을 따라 화단을 조성하여 장미, 포도나무, 담장이 등으로 온통 푸르게 장식하였다. 주민들의 모임도 골목길이나 마당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이곳은 이제 이 지역의 명소가 되어 인근의 주민들이 일부러 들르는 장소가 되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례로 한 개인의 노력이 이웃의 공감을 얻어 마을의 환경개선과 이웃 관계의 활성화에 기여한 성공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 2) 대구시 삼덕동 3가 -골목 가꾸기 실험

골목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 시민운동가(김경민 대구 YMCA 부장)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 담장을 허물고, 공간을 골목공원으로 가는데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개인이 자신의 집 담장을 대상으로 담장 허물기를 실시하였다가 점차 공공기관의 건물로 담장 허물기와 공원조성이 확산되었다. 프로그램

---

4) 여기에서 제시한 사례들 중 한국의 사례는 인터넷으로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미국의 두 사례는 필자가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였다(www.dosi.or.kr 참조).



램의 선정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공간에 표현하는 것, 즉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는 활동이 이루어 졌고, 이후 꾸러기 환경그림대회, 담장 벽화 그리기, 녹색가게 및 초록화실, 인형극 공연 등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개인적인 시도로써 선정되고 실행되었다.

초기 선도적인 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했으나, 골목공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했으며, 자신의 집을 개조해서 골목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가 주요사업으로 담장 허물기를 채택하면서 담장을 허문 폐기물은 대구시가 처리해 주고, 허물고 난 뒤의 조경을 위해 조경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었다. 또 여기에 필요한 나무는 대구시 임업연구소에서 제공한다는 원칙과, 담장을 허무는데 필요한 인력은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해서 해결하기도 하였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담장헐기, 꾸러기 환경그림대회, 녹색가게, 병뚜껑 벽화 만들기, 주차선 지우기 등이 있으며 주민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주민이 자체적으로 담장을 허물고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 이후에 행정이 이런 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현재 대구시가 이 운동에 적극 지원하고 나섬에 따라 대형건물, 공공건물, 개인주택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담장허물기가 더욱 확산되었다. 1999년 12월 초까지 대구시 내무국이 신청을 받은 곳은 모두 105곳에 이른다.

담장을 허문 곳은 서구청, 남구청을 비롯해 12개 동사무소,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상여상,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등 21곳에 이르며, 담장을 허물겠다고 밝힌 곳도 행정기관 37곳, 병원 등 공공기관 5곳, 개인 소유건물 47곳에 이른다.

### 3) 관악 현대아파트 - 지하 주차장을 주민공간으로

관악 현대 아파트는 봉천 3동의 경사지에 위치해 있고 동작구 사당동과 바로 인접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한마음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지하주차장을 주민공간으로 만들었다.

한마음 부녀회는 아파트 단지 내 부녀모임으로 임원 10명, 통반장, 동대표, 150여명의 동별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문화공간의 설치와 운영 이외에도 마을 대청소, 꽃나무 심고 가꾸기, 중고참고서 교환, 음식물

분리수거, 도서실 운영 등 다양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주민공간을 만들게 된 것은 바로 옆에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아파트식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부터이다. 이들은 입주한 초기부터 작은 문화공간을 운영했다. 그 때에는 아파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봉천 3동사무소의 2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후 이 아파트를 재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재개발조합이 해체되자 빈 공간으로 남게 된 124동 앞 지하주차장으로 주민문화공간을 옮기고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주민문화 공간은 소규모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에 부탁하기도 하지만 단지 내 주민을 초청하여 한자교실, 한지공예, 요들송,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방학기간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명교실, 영어교실 등의 특강을 마련한다. 도서실에는 5개월에 한번씩 종로도서관에서 2백 권씩 대여해 온 책들이 총 2,000여권 비치되어 있고, 입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작은 문화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이곳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한마음 부녀회가 분리 수거한 폐품을 팔아 얻는 매달 150만원 정도의 수익과 알뜰시장을 열어 생기는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강좌 가운데 일부의 수강료를 운영비용으로 쓰기도 한다.

초기 몇 명의 수고로 꾸려 낸 작은 문화공간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에게 여러 시설을 자유롭게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했으며, 무엇보다 서로 사귀고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든 변화의 주역이다.

#### 4) 부산시 금정구의 아파트 울타리를 너머 마을 만들기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는 5,000세대에 이르는 전형적인 중산층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곳에서는 93년부터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해 1월, 마을 뒷산을 오가며 인사를 나누던 10가구 19명이 금샘 사랑방 문화클럽을 만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더불어 사는 생활 공동체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이다.

이후 단오잔치, 문학의 밤을 비롯한 각종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단오잔치는 매년 6월에 열고 있다. 단오잔치는 가장 큰 행사로 1993년 첫 해에는 선경 3차 아파트 한 가운데의 넓은 광장에서 열렸다. 이 때 자그만치 400

명이나 모였다. 두번째는 700명, 세번째 잔치에서는 2000여명, 네 번째는 장소를 단지가 아닌 숲으로 옮기면서 참여인원이 줄어 600여명이 참가했지만 점차 규모가 확대되어 지역적 차원의 축제로 변화되고 있다. 매년 잔치의 마무리에는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할 이웃과 같은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담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으로 마감한다.

## 5) 인천시 부평 문화의 거리 만들기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70년대부터 조성된 청천동, 효성동 등 대단위 공업지역의 발달로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주거환경, 교육시설, 문화공간 등 전반적인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은 열악한 상황이었다. 특히,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에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시설, 공원녹지시설, 교육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규모 할인매장과 백화점의 등장, 자가용의 증가와 지하철 개통에 따른 상권분산, 젊은 인구의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의 상권이 축소됨에 따라 위기를 느낀 상인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시장 거리가 상인들만의 것이 아닌 그 지역을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의 것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것이 차차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가게 되었다. 즉, 거리를 아름답게 미화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부평주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시장을 찾아오게 함으로써 상권의 부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공할 휴식공간을 조성하자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부평에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대략 30~35명의 건물주들로 이루어진 부평시장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확정되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임대상인들을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발전 추진 협의회'라는 조직이 결성되었다. 지금까지 번영회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였다면 이들은 문화의 거리를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가와 노점상 처리 문제를 협의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역 상권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뜻을 모은 상

인들은 1996년 7월에 부평시장 중앙로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줄 것을 구청에 탄원하였다.

상인들의 끊임없는 탄원과 진정서 제출로 그 해 10월에 부평구에서는 상인들의 문화의 거리 조성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거리 조성 운동에 들어간 재원은 상인들 스스로 100~500만원 정도 성금을 걷어서 마련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조성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구청예산으로 실시되었으나 상인들도 6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상점가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등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보였다. 조성된 문화의 거리는 가로환경 정비, 문화의 거리임을 알리는 상징물, 분수대, 벤치, 가로수 등을 설치하여 가로 환경을 정비하였다.

#### 6)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송학마을-친환경 마을 만들기

성동구의 금호 행당, 하왕, 옥수, 응봉지역은 하나의 산을끼고 서로 연결되면서 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형성한 곳이다. 그중 금호 송학마을은 성동구 금호동과 행당동 일대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재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조성한 가이주단지이다(재개발사업은 1993년 초부터 시작되어 1999년 중순에 완료 - 세입자, 행정, 조합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 세입자와 조합이 함께 공사비 부담).

이 지역은 93년부터 합동재개발을 겪으면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운동을 계기로 형성된 주민들의 참여의욕은 생존권과 직결된 주민들의 강력한 결속으로 이어졌다.

‘주민협동 공동체 실현을 위한 금호·행당·하왕지역 기획단’ 창립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1997년부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정참여사업(환경분야)의 일환으로 동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알아보고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천활동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발전. 이에 지역내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할 주체로서 ‘논골 작은 환경모임’이라는 주민 소모임 구성하게 되었다. ‘논골 작은 환경모임’은 ‘금호 행당 하왕지역 기획단’과 전문가 단체인 도시연구소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실천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재정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자체 예산이 6대4의 비율로 투입되어 진행되었다.

금호동 송학마을의 마을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생존권과 관련된 강한 결속

력이 바탕이 되었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주민과 시민 단체, 전문가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마을 만들기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사례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는 전문가의 지원이 있을 경우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7) 주민이 뽑은 구청사 건축계획안

1998년 12월 도봉구청은 구청사 현상설계안의 심사과정에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구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이미지를 일신하고 주민참여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도봉구청은 그간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구청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투표하여 뽑은 계획안대로 지어진 청사로 이전하게 된 후 구청을 찾는 주민들은 이전과는 훨씬 다른 친근감과 애착심을 새 구청사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어쩌면 아주 작고, 별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도봉구의 주민이 뽑은 구청사 설계안 사례는 민선시대 이후의 주민에 대한 행정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이 구청사 설계안을 뽑게 되기까지는 주민참여에 대한 도봉구청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는데, 민선 2기를 맞아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며,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시비를 없앤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1998년 8월의 설계경기 공고를 거쳐 11월의 청사 현상설계에는 총 29개 작품이 응모했고, 구청 국장단의 정책회의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98년 12월에 15명으로 구성된 건축전문가들이 응모작품 가운데 3개 작품을 1차로 선정하였다. 설계안의 선정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일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음을 들어 반발하였으나,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장단점을 담당공무원들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함에 따라 주민과 위원회의 의견비율을 3대 7로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결국, 1998년 12월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민 450여명과 공무원 250여명이 참여하여 각 작품별로 설계자의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작이 결정되었다.

행정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례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 현안문제에 투표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8) 중계주공 아파트 -녹색아파트 만들기

1995년에 건설된 680여세대 규모의 중계 주공아파트에서는 녹색아파트 만들기 활동이 펼쳐졌다.

서울동북 여성 민우회가 지역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환경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상지를 선정하던 중 도봉구 벽산아파트 단지와 중계 주공 4단지를 후보로 선정하였고 이 단체에 소속된 유송화의 원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로 시작되었다.

녹색아파트 강좌를 개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사료화하는 농장을 견학해 익힌 것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주로 했다. 이외에도 아파트에서 환경친화적으로 놀아보기, 우리 아파트는 내가 지켜요, 우리 마을 생태탐사를 주제로 3회에 걸쳐 진행한 어린이 환경학교가 있다.

필요한 경비는 서울 동북여성 민우회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사업을 공모하고 그것이 지원과제로 선정되면서 서울시로 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400만원으로 충당하였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여성민우회가 동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으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영농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이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주민조직의 뒷받침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가 매우 의욕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이 사업은 지속되지 못하였다.

## 9) 은평구 녹번동 - 어린이 손으로 통학로 만들기

시민단체인 도시연대와 녹번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모임인 녹색어머니회가 주체가 되어 이 사업은 진행되었다.

초등학교 통학로 상의 제반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교통안전지도로 작성하여 구청에 개선을 요구하려 했다. 시민단체의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례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어린이들로 하여금 방과후 직접 자신이 다니는 통학로를 걸으면서 통학로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모아 교통안전신문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시민단체의 지도에 따라 어린이 10명이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고 그 토론을 토대로 학교통학로 안전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결과물을 학부모와 함께 나누면서 녹색어머니회 모임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손에 의한 교통안전지도도 만들어 졌다.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이 활동의 주체로써 참여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지원이 지속적이지 못했고, 녹색어머니회 자체가 회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활동이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행정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정책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개입도 지속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 10) 신림 7동 난초골 공동체

난곡주민회관 간사인 최윤정씨가 난곡에 등지를 틀고 '골목공동체'라 이름붙인 6가구 모임도 하고 현웃 재활용, 무공해비누쓰기 운동을 펼치며 공동체 활성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97년 5월 피시통신 하이텔에 달동네 이야기를 쓰면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얼마 후에 피시통신 회원들을 중심으로 후원모임인 '달동네를 사랑하는 모임'이 결성되고 이런 활동들이 마침내 난초골 공동체라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1999년 4월부터 실업극복국민운동 지원금을 받아 결식어린이 100여명한테 날마다 밥 한끼씩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 이 일을 6개월 남짓 하자 지원금이 바닥나려 했다. 돈 문제를 고민하다 김치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피시통신 하이텔의 가톨릭동호회 (go HANUL)에 호소해 창업자금을 마련. 이어 주부, 청년 등 3명과 함께 무공해 포기김치, 깍두기, 총각김치를 담그기 시작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다.

#### 11) 미국의 엔 스트리트 코하우징(N Street Cohousing): Davis, California

본 코하우징단지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존의 코하우징단

지와는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데이비스(Davis)시에 있었던 기존의 주거 단지를 점차적으로 코하우징단지로 바꾼 것이다. 초기 이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던 케빈(Kevin)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한 개 동을 공동의 주거로 임대를 하여 이를 코하우징단지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점차 이 지역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주변의 담들을 허물기 시작하여 13개의 주택이 참여하게 되었다.

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공용주택은 가장 규모가 크며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부 평면이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큰 부엌과 식당, 그리고 거실이 있으며 5개의 침실은 임대하여 이로부터 얻어지는 임대료는 이곳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밖의 공용공간은 세탁실, 목공작업실, 도구실 등이 각기 다른 건물에 위치하며 정원에는 빨래건조대, 어린이 놀이터, 피크닉 테이블, 채소밭, 그리고 닭 사육장이 있다. 이 닭장에서는 일정량의 달걀을 생산하여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각 주택의 앞 정원은 개별 주민들이 관리를 하며 뒤에 위치한 정원은 공동의 공간으로 관리한다. 한 편 이 단지에는 공동의 옥외 사우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실비만 부담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주변 이웃들과의 시설의 공동사용은 사회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 12) 미국의 사우스사이드 파크 코하우징

(Southside Park Cohousing), Sacramento, California

본 코하우징단지는 캘리포니아 새클라멘토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개발 당시에는 급격하게 퇴락하던 지구로 부동산 업자들은 이 지역을 사무용 건물들로 재개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한다. 실제로 이 지역은 도시 중심부와 근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근접한 곳에 공원이 위치하여 생활환경은 비교적 좋은 곳이었다. 대부분의 미국에서의 코하우징단지와 마찬가지로 이 단지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단지의 구입과 건설 기획이 이루어졌으며 개발 기간은 상당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개발 진행 과정을 보면 이를 개발하고자 참여한 주민들 뿐 아니라 금융기관, 개발업자, 그리고 시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 개발 방법은 매우 독특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듀렛과 맥카멘트가 코하우징(Cohousing)이란 저서를 출간 한 후 1989년 1월 이 지역의 YMCA에서 처음으로 덴마크의 코하우징에 관하여 소개하였을 때 이 지역 주민이었던 몇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중 수잔 스코트(Susan Scott)는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코하우징단지 개발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때부터 코하우징 개발을 위한 주민회의가 수잔을 중심으로 매월 모이기 시작하였다. 주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저녁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하여 한가지 음식을 가지고 모여 식사를 하며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며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으며 월별 뉴스레터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뉴스레터의 보급과 더불어 이러한 모임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도중에 참가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1989년 6월부터 월별 모이던 모임은 격주로 모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코하우징단지를 현실화시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 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섭외하여 부지선정을 위한 작업을 하였으며 새크라멘토 시의 5번가의 T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거의 2년간에 걸친 정부와의 작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면세 조건의 부지구입이 가능하였다. 실제로 수잔(Susan Scott)이 남긴 기록을 검토하면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수잔과 동료들은 거의 6개월간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변호사와 장시간의 회의를 진행해야 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건설 허가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었다. 초기에 필요한 자금 중 은행에서 190만불을 대출 받고 부족한 자금은 시에 요청하여 30만불을 대출 받게되었다.

이 코하우징단지에 전체 분양주택 수는 25개 주택이었으며 이 중 저소득 가구에 5개의 주택, 중간 정도의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에 6개의 주택을 분양하였으며 14개의 주택은 시장 가격으로 분양되었다.

필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1999년 6월은 이미 이 주거단지에 주민들이 정착한 후 5년이 지난 시기이나 대부분의 건물은 비교적 신규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포터 하우스도 새로 개 보수하여 주민들이 거주하는데는 불편한 점이 없었다.

이 단지의 전체 구조는 25개의 주택단위로 연결되어 있고 단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주택은 공동의 식사와 주민회의, 파티와 사교, 아동 오락실, 세탁실, 그리고 음악연주와 댄스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세탁실에는 3대의 세탁기와 3대의 건조기, 서류장과 세탁용품을 보관하는 장들이 있다. 정원에는 빨래건조대, 어린이 놀이터, 피크닉 테이블, 채소밭이 있다.

주민 각자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여러 개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각 위원회는 한 회원이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각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운영계획을 개발하여 주민회의에 제출하며 이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린다. 의제와 시간과 장소는 미리 게시판에 알리고 논의 결과도 게시판을 통하여 알려 모든 주민들이 진행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한다.

공동의 관리를 위하여 각 가구들은 관리비를 매월 내고 있는데 이는 주택의 크기나 가족 수에 따라 50불에서 150불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 사례들은 활동의 주체나 사업의 규모, 관련된 조직들도 다양하다. 이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 볼 때 이러한 활동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주체는 당연히 주민들이다. 비록 활동의 성격에 따라 시민 단체나 행정 조직이 앞장 설 경우도 있었지만 시민 단체나 외부 전문가, 또는 행정조직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돕고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제공해 주고 관계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살펴본 마을의 사례들을 활동 주체와 활동 내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그림 3])

<표 1>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사례 유형 -활동 주체와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활동주체 \ 활동내용	공간 시설 만들기	조직/프로그램 만들기	공간/시설 + 조직/프로그램 만들기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서울 용두동 꽃길 만들기	부산 금산마을 문화마을 만들기	관악 봉천 3동 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주민공간으로 만들기 미국 N-Street 코하우징
주민과 외부 비영리 조직의 지원이 함께 하는 활동	서울 수유 6동 극동아파트 녹색아파트 만들기	중계주공 아파트 -녹색 아파트 만들기	녹번동 통학로 만들기
주민과 행정 조직이 함께 하는 활동	주민이 뽑은 구청사 건축계획안	전농동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 조성
주민, 비 영리조직, 행정조직이 함께 하는 활동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양지공원	신림 7동 난초골 공동체	미국의 사우스사이드 파크 코하우징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송학마을-친환경 마을 만들기

<표 2> 공동체 활동 주체에 따른 조직의 역할

구분 유형	주민들의 역할	비영리 전문가집단 /시민단체의 역할	행정 조직의 역할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 인식</li> <li>·주민의 리더쉽 개발</li> <li>·주민의 조직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육과 홍보</li> <li>·주민들의 리더쉽 훈련</li> <li>·조직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 교육</li> </ul>	
주민과 외부 비영리 조직의 지원이 함께 하는 활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에 대한 연구</li> <li>·정보수집과 제공</li> <li>·공동체 활성화 지원</li> </ul>	
주민과 행정 조직이 함께 하는 활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 요청방법 교육</li> <li>·제도적 지원 법제화 운동</li> <li>·제도적 연계망과의 접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을 돕는 행정지원</li> <li>·지원체계 및 제도마련</li> <li>·행정부서간 연계</li> </ul>
주민, 비 영리조직, 행정조 직이 함께 하는 활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조직 속에 참여하여 활동</li> <li>·조직간의 역할 조정</li> <li>·정보의 소통</li> </ul>	상동

## 5. 미래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제안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접촉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리적인 환경의 제공과 프로그램의 운영의 중요성은 앞서서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근린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장소로서의 커뮤니티센터는 최근 도시계획이나 복지, 그리고 주거학 분야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마도 최근에 이루어진 두 관련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인 관심의 결과이기도 하나 이들 연구의 중요성은 실천적인 측면의 내용들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라 여겨진다. 이들 연구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sup>5)</sup>

### 1) 커뮤니티센터의 핵심 기능과 그 개념

커뮤니티센터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근린지역 사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만남의 중심이 되는 장(場, a central meeting place)을 의미한다.

5) 이들 두 연구는 새천년 준비위원회에서 낸 보고서“뉴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모델 개발”(2000.11)와 대한주택공사에서 발간된 “살고싶은 아파트 단지 만들기를 위한 커뮤니티 증진 방안 연구”(2000. 12)에 정리되어 있다.

커뮤니티센터는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생활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기초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또한 지역주민들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a central meeting place)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간의 접촉 증진과 공동체 의식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커뮤니티센터의 핵심기능을 5가지로 유형화하고 그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3-1> 커뮤니티센터의 핵심기능과 그 개념

핵심기능	분류	개념
public service 관리·행정	공공 행정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창구로서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민원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관련서류를 배치하여 동사무소나 구청 방문 시 신속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생활 편의를 위한 우편업무, 은행업무 등도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 사무	기존의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가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에 포함되어 운영될 수 있다.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커뮤니티센터 내에 위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관리 사무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 관리업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서비스	커뮤니티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제공되는 생리·위생공간, 조리공간, 수납공간 등을 의미한다.
communication 정보·상담	정보	주민들의 정보화를 돕는 기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인터넷 서비스, 컴퓨터 사용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주민의 생활이나 사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기기를 설치하여 편리성을 높인다. 또한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주민으로서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연결한다.
	상담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서비스나 생활 상담이나 개인문제 상담을 위한 기관이나 인물과의 연계를 제공하여 가정 생활과 지역사회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높인다.
	집회	지역 주민의 단체 활동이나 개인 활동, 각종 모임들을 개최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고 가족, 개인의 활동을 지원해 준다.
Health 건강·운동	건강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나 건강 검진 등의 기능을 보건소의 파견 업무 형식으로 순회진료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커뮤니티센터 내에 통합함으로써 근거리안에서 기초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및 증진에 기여한다.
	운동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체력관리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지역의 옥내·외 체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에 기여한다.
Amenity 여가·문화	여가	지역 주민들의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한 각 연령층별, 성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제공한다.
	문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전시회나 공연을 개최하고 영화를 상영하거나 현장의 답사·방문과 독서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자아성취에 기여함과 동시에 동년배 간 또는 지역주민간의 교류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Education 보육·교육	보육	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이나 보호자의 외출이나 기타 긴급상황시 단시간 동안에 영·유아를 위탁할 수 있는 탁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을게도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보호자 부재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 연령층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 아동 등이 방과 후에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표 3-2> 지역문화시설에서 운영되는 기능별 활동프로그램 현황

시설구분		기 능				
		Public Service 관리·행정	Communication 정보·상담	Health 건강·운동	Amenity 여가·문화	Education 보육·교육
지역 문화 시설	주민 회관		· 지역사회 행사, 회의, 기념식 · 주민행사 시 장소제공 서비스 (결혼식, 각종모임 등)	· 건강(수지침 등) · 생활체육 (에어로빅, 단전호흡 등)	· 연극, 음악, 무용, 영상물 등 공연 · 예술품 전시 · 발표회 및 행사 · 문화강좌· 교양강좌 · 음악강좌· 미용강좌 · 공예강좌	· 연수, 교육, 강연 · 외국어강좌
	주민 체육 센터			· 체육 관련 프로그램 (수영, 집도, 농구, 헬스, 발레 등)	· 공예강좌· 미술강좌 · 음악강좌	· 외국어강좌
	도서관		· 도서관관련자료 제공 · 글짓기 대회	· 건강강좌	· 전시회 및 감상회 · 노래교실· 미술강좌	· 외국어강좌 · 독서지도· 독서회 · 이야기교실
	구문 화원 · 문화의 집		· 각종 공연 · 토론회	· 건강강좌 (수지침, 발진강 등) · 체육강좌 (고전무용 등)	· 교양강좌· 공예강좌 · 음악강좌(국악/양악) · 미술강좌· 문학강좌 · 전시회	· 외국어강좌

<표 3-3> 지역 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기능별 활동프로그램

시설구분		기 능				
		Public Service 관리·행정	Communication 정보·상담	Health 건강·운동	Amenity 여가·문화	Education 보육·교육
지역 복지 시설	여성 발전 센터 <sup>1)</sup>		· 여성문제 상담 · 전시회 · 정보처리 강좌 · 알뜰매장 ·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 건강 강좌(수지침) · 생활체육 (디스코, 에어로빅 등)	· 여고생 취미교실 · 노래부르기 · 국악 강좌 · 의상 강좌 · 제과/제빵 강좌 · 공예 강좌 · 미술 강좌	· 외국어 강좌 · 한글교실 · 자동차교실 · 한문교실 · 유아실 운영
	종합 사회 복지관 <sup>1)</sup>	· 경제적 지원 사업 (저소득층에게 생필품 지원)	· 각종상담(가족, 집단, 진로, 개인 상담, 약물상담, 법률상담 등) · 컴퓨터 교실 · 가사 및 생활지원사업 (도시락 배달, 김치 제공) · 주민자주조직(동아리)육성사업 · 자원봉사자 장소제공 사업 · 취업/부업 개발·연결 프로그램	· 물리치료사업 · 이동목욕서비스 · 의료서비스 · 생활체육 강좌 (에어로빅 등) · 건강(수지침 등)	· 노인대학 · 제과/제빵 강좌 · 음악 강좌 · 영화 상영 · 공예강좌	· 방과후(아동· 청소년) 교육 · 탁아교실 · 부모교육 · 소집단 교육 · 치료교육(학습장애자, 치매, 장애 청소년 등)
	노인 종합 복지관 <sup>1)</sup>		· 이용상담(복지관 및 프로그램 이용) · 생활 상담(가족, 경제문제 등) · 건강 상담(건강체육, 건강유지 등) · 전문상담(법률, 의료 등) · 후원가정 결성 프로그램 ·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프로그램	· 각종 운동프로그램 · 건강강좌 · 각종 물리치료 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사업	· 국악 강좌 · 음악 강좌 · 미술 강좌 · 공예 강좌 · 문학강좌 · 교양강좌	· 외국어 강좌 · 한글 강좌

시설구분		기 능				
		Public Service 관리·행정	Communication 정보·상담	Health 건강·운동	Amenity 여가·문화	Education 보육·교육
지역 복지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 청소년 그룹활동	· 체육활동 (수영, 농구, 무용, 탁구, 검도 등)	· 청소년강좌 · 교양대학 · 음악활동 · 방학특강 취미교실 · 근로 청소년 취미교실 · 문화교실 · 영화관람 · 청소년 연극 공연 · 청소년 하계 수련회 · 청소년 건전 가요제 ·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 외국어강좌
	노인정 <sup>2)</sup>		· 율례회의 · 학생들의 풍물 공연 · 무료 이·미용 서비스 · 야유회	· 건강체조 · 의료상담 · 건강(혈압체크, 수지침 등)	· 휴식 · 취미활동 (화투, 장기, 바둑) · 교양강의 · 민요교실	

1) 지역복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communication(정보, 상담, 집회) 기능에 포함시켜 정리하였음.

2) 노원구에서 종합 사회복지관 사업의 일환으로 9개소 노인정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정리하였음.

<표 3-4> 행정서비스시설, 공공서비스시설에서 운영되는 기능별 활동프로그램 현황

시설구분		기 능				
		Public Service 관리·행정	Communication 정보·상담	Health 건강·운동	Amenity 여가·문화	Education 보육·교육
행정 서 비 스 시 설	동사무소 <sup>1)</sup> (주민자치 센터)	· 생활보호사업 · 주민등록 업무 등 각종 증명 발급 · 생활 민원 처리 · 행정서비스 · 안전관리 사무	· 인터넷 정보망 운영 · 전시회 · 컴퓨터 교실 · 강연회, 토론회 · 생활정보제공 · 주민행사 장소대여사업 · 분우이웃 돕기 (이·미용 봉사 등) · 내 집안 청소하기 · 청소년 지도 · 알뜰 매장 · 자원봉사자 발굴 및 연계	· 생활체육 (스포츠 댄스, 에어로빅, 탁구, 무용 등) · 건강 (수지침, 발맞사지, 단전호흡, 요가 등)	· 교양 강좌(명사 특강) · 음악 강좌(음악감상, 노래교실, 장구 등) · 공예 강좌(한지공예, 꽃꽂이, 종이접기 등) · 미술 강좌(서예, 민화 등) · 기타 강좌(메이크업 등) · 도서대여 및 독서	· 시민 교육 (외국어 강좌 등)
	우체국	· 우편업무 · 은행업무	· 생활정보안내 (기상정보, 여행시각, 문화행사, 스포츠, 생활경제, 수산물 유통정보 등) · 지역특산물 상설매장			
공공 서 비 스 시 설	보건소		· 가정 및 사회복지 시설 방문 사업	· 구강 및 영양 개선사업 · 전염병 예방,관리,진료 · 노인보건 사업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 응급 의료에 관한 사항		· 보건교육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지도 ·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지도

<표 3-5>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대상별 운영가능한 활동프로그램

대상	Public Service 관리·행정		Communication 정보·상담			Health 건강·운동		Amenity 여가·문화		Education 보육·교육	
	공공행정	관리·사무	서비스	정보	상담	집회	건강	건강·운동	여가	문화	보육
대인행정 (수립업무, 주민원서부 비치 및 기비연결,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 민원신고접수 업무, 은행업무(CD기))	· 생활 관리	· 상담 관리	· 주민행정 관리	· 주민행정 관리	· 주민행정 관리	· 지역주민 모임	· 건강강좌 (노년층, 장애인 등)	· 주민운동참여 여가활동(주인 소풍, 주민 운동회, 노래자랑, 영화 상영 등)	· 전시회 · 문화 탐방 · 각종 공연 개최 · 특색 및 도시대여	· 보육	· 소비사교육 · 환경교육
노인·자원봉사		· 컴퓨터교실	· 노인문제 상담 · 노인문제 상담 · 노인문제 상담	· 노인문제 상담 · 노인문제 상담 · 노인문제 상담	· 노인문제 상담 · 노인문제 상담 · 노인문제 상담	· 건강강좌 (노년층, 장애인 등)	· 각종 운동/생체교육교실 (단전조류, 요가, 에어포닉 등)	· 노래교실 · 각종 미술 강좌	· 언어교육강좌 (한글, 영어, 일본어 등)	· 언어교육강좌 (한글, 영어, 일본어 등)	· 언어교육강좌 (한글, 영어, 일본어 등)
영유아						· 예방주사접종 (보건소파견업무)	· 각종 체육/활동 교실	· 각종 놀이교실(구연동화, 이야기교실 등)	· 태아프로그램 (시간제 운영)		
아동		· 컴퓨터교실	· 아동상담교우관계 가족관계, 학습 등)	· 아동상담교우관계 가족관계, 학습 등)	· 아동상담교우관계 가족관계, 학습 등)	· 각종 체육교실(유아/ 지역사회체육시설 활용 프로그램들 포함)	· 각종 미술교실 · 각종 음악교실(악기, 노래 합창, 음악감상 등) · 각종 동아리 활동	· 주일/방학단체활동(문 화유적답사, 박물관견학, 공연관람 등)	· 방과후 교실 · 공부방 프로그램 · 한문교실 · 외국어 강좌		
청소년		· 컴퓨터교실	· 청소년상담 (교육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취업 등)	· 청소년상담 (교육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취업 등)	· 청소년상담 (교육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취업 등)	· 각종 체육교실 (옥외지역사회 체육시설 활용 프로그램들 포함)	· 각종 미술교실 · 각종 음악교실(악기, 노래 합창, 음악감상 등) · 10대 주말 밴드 교실(합창, 태크노 등) · 각종 동아리 활동	· 영화상영 · 주말, 방학 단체활동 (문화유적답사, 박물관견학, 공연관람 등)	· 공부방 프로그램		
성인		· 컴퓨터교실 · 업무처리 (OA기사용)	· 성인상담(건강, 스트레스 조절, 직장문제, 진도문제, 가족관계, 부부관계, 이성관계, 자녀관계 등) · 생활상담(주택상담, 법률상담 등)	· 성인상담(건강, 스트레스 조절, 직장문제, 진도문제, 가족관계, 부부관계, 이성관계, 자녀관계 등) · 생활상담(주택상담, 법률상담 등)	· 성인상담(건강, 스트레스 조절, 직장문제, 진도문제, 가족관계, 부부관계, 이성관계, 자녀관계 등) · 생활상담(주택상담, 법률상담 등)	· 건강강좌 (암검진, 혈압체크, 당뇨체크 등)	· 각종 미술교실 · 각종 음악교실 · 각종 동아리 활동 · 여행 · 각종 취미교실	· 영화상영 · 주말/방학 단체활동(문화유적 답사, 공연관람 등) · 각종 공연개최	· 부모교육 · 사회관계형성교육 · 시사토론회(경제, 정치, 경제, 지역사회 현안 등)		
센터 직원	· 프로그램 기획, 시정에 관한 워크숍		· 직원상담(문제관계 심원 등)	· 직원상담(문제관계 심원 등)	· 직원상담(문제관계 심원 등)	· 건강강좌					· 직원교육

·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되는 활동프로그램은 커뮤니티센터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각종 시설들과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2) 커뮤니티 센터의 시설과 활동 프로그램

현재 국내에는 주민들의 생활지원 및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의 욕구가 다원화, 개성화 되어가고 의식주의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서 건강, 문화, 여가, 정보 등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커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면 이러한 각종 커뮤니티 관련시설(특히 문화, 복지시설)의 증가는 시대의 수요를 고려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의 현 상태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각 시설들이 기능적, 물리적인 면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시설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둘째, 지역내의 절대인구를 반영한다면 시설의 수가 여전히 부족하며 또한 자치구간의 경제적 상황의 차이로 인해 시설 공급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셋째, 예상 수요에 따른 시설의 수가 적절치 못해 수요가 큰 시설의 공급이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넷째, 시설의 대형화로 주민의 이용권 밖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은 주민들이 커뮤니티 관련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유사한 시설들이 근거리에 입지함으로써 지역적 편중과 중복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한지역내에 시설들이 어디서건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따라 시설의 활용과 효과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한계성은 유사 시설간의 서비스 연계와 조정의 노력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시설간의 조정의 역할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센터의 활동 프로그램의 방향은 첫째, 근린 지역의 공공·민간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역할을 해야하며 둘째,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셋째, 주민들간의 교류증진에 앞장서야 하고 넷째, 지역 정보제공에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되는 활동 프로그램은 소규모 지역사회 별로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커뮤니티센터의 활동 프로그램은 그 기능별로 기본적인 개념이 존재하나 그 개념이 반영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커뮤니티센터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 지역 공공·민간 시설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이들의 보완 역할을 해야하고 시간대도 필요에 따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설로 하여 그야말로 확장된 생활 공간의 개념이 도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커뮤니티센터 별로 필요한 활동프로그램의 종류와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감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궁극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커뮤니티센터의 지도자(Community Center Leader)를 양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협회(Community Center Association)를 형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부를 두어 커뮤니티센터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가 과정을 마련하고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커뮤니티센터의 담당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확립도 고려해 볼만하다.

커뮤니티센터의 활동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 커뮤니티센터는 주기적(1-2년마다 한번씩)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Self-assessment)를 직원들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후속 프로그램 개발·조정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 3) 커뮤니티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사안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번째는 공급방식과 운영주체의 문제이다.

누가 운영주체가 될 것인가? 커뮤니티센터를 공공 주택 신규 공급시에는 분양아파트의 공유면적에 포함시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센터의 운영은 민영화하여 입주민과 전문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 단지는 공동주택 단지와 상황이 달라 주민들의 공유면적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띄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 직원, 예산을 제공할 수도 있다. 단 비영리 법인에서 커뮤니티센터의 설치를 희망한다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을 검토한 후 센터의 설치를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운영주체가 공공이건 민간이건 간에 커뮤니티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탁아서비스나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인력 및 예산지원이 해당 관할 부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두번째는 비용 문제이다.

커뮤니티센터가 설립되기 위한 건축비는 공동주택의 신축시에는 분양가에 포함시켜 수익자 부담 형식을 취하고 단독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을 마련하여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한 건축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운영시에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직원 인건비, 비품 및 기자재 구입 및 관리, 건물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자의 100퍼센트 자부담(유료)으로 할 것인가? 혹은 커뮤니티센터를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소요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이용자의 자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가? 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사용방식의 문제이다.

커뮤니티센터가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기본 전제이긴 하나 공동주택단지별로 커뮤니티센터가 공급될 시에는 단지 입주민과 단지 외부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사용에 대한 차별성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즉 회원제 방식을 채택하여 단지 주민들에게 회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고 유료 프로그램의 이용 시에는 단지 외부지역 주민이 이용할 때와는 이용비에 차등을 두어 단지주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넷째는 직원 고용방식의 문제이다.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직원들은 누가 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고용될 것인가? 커뮤니티센터의 특성상 시간제로 해당 활동프로그램의 개설 때에만 고용될 수 있는 직원도 있고 센터의 행정업무를 맡거나 프로그램을 조정(Program coordinator)하거나 시설의 관리를 책임 질 정규 근무직원들도 필요하다. 이러한 직원들의 수와 고용방식은 각 커뮤니티센터의 규모별로 차이가 있게된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 형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를 선택하여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동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정규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커뮤니티센터가 현실화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행 조건들이다.

## 6.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전략과 제안

한 문화권에서 일상생활의 전형적인 형태가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러한 생활의 방식은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사는 주민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성 취업의 증가, 단조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공동체적인 생활의 퇴조에 대한 우려 등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적 생활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상에서 제시한 마을 만들기의 사례와 커뮤니티센터의 제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특히 우리 나라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대안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대안들의 내용은 전문가들이 주목해야 할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공동체적 생활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리더쉽 훈련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을 통하여 공동체적인 생활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가치관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공동체적인 마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활동의 전 과정은 하나의 교육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리더의 초기의 노력은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적인 자극에 힘입어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실천 의지와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실제로 다른 마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실질적인 체험을 통하여 어떠한 성격을 갖는 공유공간이 단지 주민들의 생활과 주민간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간의 의사소통을 하며 의사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공동의 공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 관리 할 것인가, 필요한 자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모든 규약과 문서들은 어떻게 구성하며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등 에 관하여 배우게 되며 대부분의 단지에서 이러한 교육은 전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기존의 주거지에서의 공유공간의 활용과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인 마을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준

비하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원하는 주민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며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하다. 앞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던 리더의 헌신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현실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리더는 대부분 공동체적인 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풍부한 생활체험과 교육적인 배경을 갖춘 사람이며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로 공동체적인 삶을 위한 마을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더가 양성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도적인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한 조직의 노력으로만 해결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조직과의 관계, 의사소통, 정보의 활용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개별가구,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의 조직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의 활용과 의사소통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공유공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공동주택 단지에도 건축관련 법규에 지정한 단지 내 시설기준이 있으나 대부분의 단지에는 건축법 상 최소한의 기준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획일적인 공간들이 배치되어 왔다.

미국의 코하우징에서 볼 수 있는 공유공간은 각각의 단위주택에 개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제공되어 주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으며, 주민간의 사회적인 접촉이 증가되어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공동체적인 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개발의 규모는 소규모의 단위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덴마크의 협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분석한 메카멘트와 듀렛(McCamment and Durrett, 1994)은 이러한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8-25가구의 규모가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초기에 계획에 참여하는 가구는 5-15가구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규모의 단지개발은 앞으로 우리 나라의 공동주택 개발 시에도 하나의 대안적인 지침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대 단지의 공동주택을 개발한다 해도 전체 단지는 소규모의 단위로

나누어 이러한 단지의 집합으로 계획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건설회사 위주의 공급에 의존해온 우리 나라의 대규모의 공동주택개발은 획일적인 공간의 구획에 의존하였으며 개별가구의 요구나 공동체적인 삶을 위한 공간의 배려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대도시의 개발 가능한 토지의 소멸로 대규모의 토지를 확보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규모의 주택단지 개발은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은 지역마다 거주민들의 독특한 요구가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생활양식도 차이를 보인다.

만일 기존의 단독주택단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지역을 공동체적인 주택단지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엔 스트리트 협동주택단지의 모형은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즉 주민 10여가구가 모여 단독주택의 담을 허물고 그 옆집의 담을 차례로 허물어 개방적인 공동의 공간을 공유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새로 재 건축해야 하는 마을회관이 있다면 이러한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이를 재 건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적용은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능하다. 즉 복도형의 아파트일 경우 20여가구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하나의 아파트 공간을 임대하여 이들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취업 주부를 위하여 어린 자녀들의 방과후 지도를 하거나 공동의 식당에서 일주일에 2-3번 공동의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주부들의 가사노동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공동체 생활을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제도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건설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을 위하여 채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경제적인 측면의 수익성을 우선으로 삼고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설방법에 의거하여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위주택 이외의 공동체를 위한 공간의 확장이 어려우며 그러한 공간의 필요성에 입각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제로 주민들 간의 상호적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왔다. 또한 주거단지의 개발이 건설업체나 개발 주체가 다르며 개발되는 시기도 차이가 있어 인근의 단지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별 단지의 계획으로만 모든 공간의 배치가 이루어지므로 한 지역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위한 공유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최소한의 공간 유형과 최소의 설치면적 만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과 제도만으로는 불완전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계획을 촉진시키기 위한 변혁이 요구된다. 공동체적인 생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간을 단지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용적률의 범위를 융통성 있게 조정해준다거나 세제 혜택, 또는 금융적인 지원을 확대해 준다면 이러한 공간의 배치는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제나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은 이러한 공유공간이 확보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곱째,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마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원기금을 확보하며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다양한 지원수단을 개발하도록 한다. 실제로 이러한 작업은 장기간에 걸친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대한주택공사(2000). 살고싶은 아파트 단지 만들기를 위한 커뮤니티 증진 방안 연구
- 손승광 외 3인(1999).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의 용도복합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제주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주거학회
- 송복(1995). 21세기 사회와 공동체 생활문화,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다학 제적 접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새천년준비위원회(2000). 뉴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모델 개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9).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 서울특별시(1997).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이경희(1997). 여성과 거주환경. 시민의 도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_\_\_\_\_(2000). 공동주택 개발에 있어서 서구의 협동주택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8(2): 185-202
- 이연숙(1996).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서울: 경춘사
- 주택산업연구원(1996). 공동주택단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선호조사.
- Borgatta, E. F.(1992). The Encyclopedia of Sociology. Toronto: Macmillan
- Duncan, James(1985). The House as Symbol of Social Structure, Home Environments, ed. by Irwin Altman and C. M. Werner, New York, Plenum
- Frank, K. and Ahrentzen, S.(1989). New Households New Housing, NY: Van Nostrand Reinhold.
- McCamant, K. and Durrett, C.(1994). Cohousing, Berkeley, California, Ten Speed Press Packard, V. (1972). A nation of Strangers. NY: David McKay Company.
- Meltzer, G.(1999). The Missing Link: A 'Sense of Community' and the ESD Debate. (<http://www.cohousing.org>)
- Spreitzer, D.(1992). Living in My Thesis: Cohousing in Cavis, California. Masters Thesis, School for International Training, Vermont
- [www.dosi.or.kr](http://www.dosi.or.kr)
- [www.cohousing.org](http://www.cohousing.org)